

교회소식

◆ 광고

1. 오늘 오후예배는 제2남·3여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찬양 연습 2시, 소망관)
2. 오늘 2부 예배후 전교인 노방전도 나갑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4년 8월 4일~6일(2박 3일) -장소 : 안면도청소년수련원
4. 스승의 주일입니다. 연합여전도회에서 교사들을 위해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홍은미, 이옥영
- 입원 : 곽은태 성도께서 어깨 수술을 위해 한국병원 908호에 입원하셨습니다.

※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 모임/청지기 안내

| 다음주일새벽찬양 | 금주 수요찬양 | 오늘 식사봉사 | 목장성경공부 | 전도특공대 | 중보기도학교 | 새가족성경공부 |
|----------|---------|---------|-------------|--------------|--------------|--------------|
| 제 4여전도회 | 여5,6목장 | 8여전도회 | 금요일 오후 7:30 | 수요일 오전 10:00 | 목요일 오전 10:30 |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 5월 행사

- 4일 : 어린이주일, 신일비전헌신예배
- 11일 : 어버이주일, 각 기관 월례회
- 18일 : 제2남, 3여전도회 헌신예배
- 25일 : 정기당회

◆ 5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 5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익, 이진석, 곽복남, 이정자

새 가족

| 번호 | 성명 | 목장 | 인도자 | 주 소 | 전화 | 소속기관 |
|----|-----|------|-----|---------------------------------|---------------|-------|
| | 최성미 | 13목장 | | 대덕구 아리랑로211 영진로알아파트 107-303호 | 010-5085-0512 | 7여전도회 |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 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33장(구12장)
새268장(구202장)
나의 맘속에 온전히

기 도 1부/김제곤 장로
2부/박권웅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룻기 1:6~18 (구 P401)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그래도 행복한 가정

기 도 설교자

찬 송 새559장(구305장) ..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박근웅 장로
2부 / 우성한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제2남·3전도회 헌신예배

오후 3시 인도 김 제 곤 회장
설교 최사무엘 목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박경숙 회장

성경말씀 인도자

열왕기상 3:4~10 (구 P514)

찬 양 제2남·3여전도회

말씀선포 설교자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찬 양 새321장(구351장) .. 다같이

헌금기도 하문숙 회계

광고/축도 인도자

✙ 다음주 기도 / 함돈수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30 인도 정 기 훈 강도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새391장(구208장) ... 다같이

기 도 정연주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여호수아 6:15~27(구 P327)

말씀선포 설교자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목장찬양 여5, 6 목장

축 도 인도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여 7, 8 목장

✙ 다음주 기도 / 박영숙B 집사

Since. 1978

No 20. 2014. 5. 18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 교회를 섬기는 분 ◆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권웅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웅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옥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 | | | |
|---------|-------------|-------------------------|--------|
| 예 배 | 주 일 낮 예 배 |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 본 당 |
|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3시 | 본 당 |
| | 수 요 기 도 회 |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 본 당 |
| | 새 벽 기 도 회 | 새벽 5시 | 사 랑 관 |
| | | 새벽 6시 | 사 랑 관 |
| 제 자 교 육 | 심 야 기 도 회 | 수요기도회 후 | 본 당 |
| | 수 요 전 도 | 수요일 오전 10시 | 소 망 관 |
| | 중 보 기 도 |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사 랑 관 |
| | 목 장 성 경 공 부 | 목장별로 | 각 교 실 |
| 주 일 학 교 | 새가족성경공부 | 2부예배 후 | 각 교 실 |
| | 유 치 부 | 주일 오전 9시 | 사 랑 관 |
| | 초 등 부 | 주일 오전 9시 | 교육관 1층 |
| | 초등부오후예배 | 주일 오후 1시 | 교육관 2층 |
| | 중 고 등 부 | 주일 오후 1시 | 교육관 1층 |
| | 청 년 말 투 스 | 주일 오후 1시 | 교육관 2층 |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호,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터넷방송, 필리핀 추수선교회/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놀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뽕엘교회/창원 군인교회, 힐령교회/김해
- 학원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이성운 김예정
-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병드롭민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강혜성(김성원), 김선화, 김성영, 김영필(심남희), 김재희, 남정아, 노시래(구남량), 박남수, 박상임, 박새롬, 박유연, 백춘현(염임순), 윤성욱(김신혜), 윤호식(주정주), 이성은(장), 이승민(염서운), 이육영(김영자), 이윤희(최길자), 이재익(김애숙), 이진석(윤혜진), 이혜수, 장재화(김덕연), 전양순, 조남년, 함돈수(곽정자), 무명

✙ 감사헌금

강철원(이지영), 강춘자, 김금분, 김영민(한현숙), 김재홍(한영자), 김재근(한영실), 김종남, 김진은(김남주), 김희경, 노시래(구남량),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영숙A, 박유연, 박은정, 박해진, 백춘현(염임순), 설인성, 성형건(윤송화), 소재익(김희화), 신소자, 안재경(장은숙), 안주모(조양순),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영희), 우호선(김순자), 원웅국(김복금), 윤성욱(김신혜), 윤호식(주정주), 이승민(염서운), 이영일(홍은미), 이인호(정지희), 이재익(김애숙), 이혜수, 장재화(김덕연), 전금남, 정기훈(최연옥), 조남년, 최사무엘(서남지), 최영준(한은정), 한영우(권유성)

✙ 선교헌금

강일창(고숙자), 김재희, 노시래(구남량), 박영숙A, 박은정, 박해진, 백춘현(염임순), 신소자, 우호선(김순자), 윤호식(주정주), 이영일(홍은미), 이육영(김영자), 조남년

✙ 일천번제헌금

강혜성, 김근국(성옥도희), 남동균(윤현덕), 남영민, 박유연, 안스디자민, 안영원(영민혜린), 안재경, 양문주(권유순), 이승민(염서운), 이영일(홍은미), 이재현(김희), 장은숙(소연진형진성), 무명

✙ 부활절감사헌금

박영숙B

✙ 목적인금

김종남

✙ 비전헌금

김영민(한현숙), 김영필(심남희), 노시래(구남량), 박남수, 박순국(조수정), 박은정, 박근웅(최윤자), 윤호식(주정주), 이영일(홍은미), 이육영(김영자), 이진석(윤혜진), 무명

목장현황

2014. 5. 5~5. 11

| 초원 | 목 장 | 모인곳 | 출석 | 헌금 | 성경 | 다음장소 | 초원 | 목 장 | 모인곳 | 출석 | 헌금 | 성경 | 다음장소 | | |
|----------|-----|-----|-----|----|--------|------|-----|------|-----|-----|-----|----|--------|-----|-----|
| 남1초원 | 1 | 김종남 | 교 회 | 5 | 20,000 | 20 | 교 회 | 여3초원 | 5 | 김채욱 | 고숙자 | 2 | 10,000 | 120 | 하문숙 |
| | 2 | 강일창 | 교 회 | 3 | 11,000 | 10 | 교 회 | | 6 | 고숙자 | 고숙자 | 2 | 5,000 | 10 | 하문숙 |
| 남2초원 | 3 | 박근웅 | 교 회 | 2 | 8,000 | | 교 회 | 여4초원 | 7 | 곽복님 | 교 회 | 4 | 15,000 | 27 | 교 회 |
| | 4 | 김명권 | 교 회 | | | | 교 회 | | 8 | 성영옥 | 교 회 | 3 | 15,000 | 70 | 교 회 |
| 남3초원 | 5 | 남동균 | 교 회 | 1 | 5,000 | 58 | 교 회 | 여5초원 | 9 | 구남량 | 교 회 | 3 | 9,000 | 25 | 교 회 |
| | 6 | 안재경 | 교 회 | 2 | 15,000 | 40 | 교 회 | | 10 | 정혜민 | 교 회 | 5 | 13,000 | 30 | 교 회 |
| 남4초원 | 7 | 오승엽 | 교 회 | 1 | 6,000 | | 교 회 | 여6초원 | 11 | 함현숙 | 교 회 | 1 | 5,000 | 15 | 교 회 |
| | 8 | 박순국 | 교 회 | | | | 교 회 | | 12 | 김복금 | 교 회 | 2 | 5,000 | 50 | 교 회 |
| 남5초원 | 9 | 조성철 | 교 회 | 1 | 5,000 | | 교 회 | 여7초원 | 13 | 정옥자 | 교 회 | 1 | 2,000 | 17 | 교 회 |
| | 10 | 이인호 | 교 회 | 2 | 5,000 | 6 | 교 회 | | 14 | 이경미 | 교 회 | 4 | 20,000 | 20 | 교 회 |
| 여2초원(실버) | 1 | 김명자 | 교 회 | 4 | 18,000 | 130 | 교 회 | 여8초원 | 15 | 신윤경 | 교 회 | | | | 교 회 |
| | 2 | 김명숙 | 교 회 | 3 | 10,000 | 40 | 교 회 | | 16 | 김춘복 | 교 회 | 2 | 10,000 | 5 | 교 회 |
| 여2초원(실버) | 3 | 권월성 | 교 회 | 4 | 13,000 | 124 | 교 회 | 여9초원 | 17 | 한은정 | 교 회 | 3 | 8,000 | 15 | 교 회 |
| | 4 | 정채순 | 교 회 | 3 | 9,000 | 140 | 교 회 | | 18 | 서남지 | 교 회 | 3 | 6,000 | 30 | 교 회 |

금주의 말씀

그래도 행복한 가정

룻기1:6~18

이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지만, 결코 불행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축복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행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룻기 말씀은 고인과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네 가정들에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사실 시아머니 나옌과 두 며느리는 다른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는 이해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시아머니 나옌은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의 고독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부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혼자 살아야 한다. 나는 이제 우리 집으로 시집 왔으니 이집 귀신이 돼야 한다"고 고집하는 그런 시아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방 출신의 며느리가 시아머니의 고향에 가서 살지만 얼마 한 달, 젊은 며느리들이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하면 얼마나 힘들겠는 가하는 이해심이 있었습니다. 나옌은 물귀신 작전으로 며느리들을 붙잡아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의 앞길을 위해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옌은 며느리들에게 진실된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옌은 "너희들이 정말로 나와 내 가족들을 변함없이 진실로 사랑해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고맙다. 그런 사랑을 베풀었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제는 되었다. 나도 내 삶에 너희들이 필요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에는 나는 너무 늙고 희망이 없고,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은 결코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사랑이 있는 가정이 사랑하는 것을 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무리 좋은 가정도 이 사랑이 없으면 부실합니다. 얼마나 이해심이 많은 시아머니일까요? 그런데 시아머니만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들을 보십시오. 나옌이 그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며느리들이 뭐라고 한-까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옌에게 이르되 야나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니다." 두 며느리들은 소리를 높여 울면서 야나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며느리들도 최선을 다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옌이 가정은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섬김과 공경이 넘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곳에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사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서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2. 서로 연합하여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나옌의 가정은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을 뿐 아니라, 연합하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남이 나의 하-남이 되시라니" 룻은 시아머니가 죽는 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머무는 것이든 떠나서 머무는 곳에 머무는 것이든 함께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함께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함께 머물-다는 말은 같은 지붕 밑에서 사는 의미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이 하룻밤 잠시 머물-다는 여인숙이 아니라, 밥만 먹고 잠만 자는 하숙집이 아니라, 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을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고대치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가족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시아머니가 죽는 날 며느리도 함께 죽는다는 집단 자살의 의미는 아닙니다. 가정이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운명을 함께 할 정도로 연합하여 의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룻이 거액의 유산을 상속 받기 위해 시아머니와 연합된 삶을 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옌이 가정에는 과부 된 며느리에게 상속해 줄 유산도 많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부양할 책임이 룻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가족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가족이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간에 물질보다 상관없이 하-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간에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옌의 가정처럼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물질은 풍족하지 못해도 여관으로서의 가정이 아니라, 하숙집으로서의 가정이 아니라, 함께 삶을 영위해 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아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문화적인 차이나 민족간에 차이나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룻이 시아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마도 이 고백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며느리가 시아머니에게 드렸던 가장 감동적인 고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원래 룻은 모압의 신을 섬기던 아방 종교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집을 와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마침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수준이 높다고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요,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인식을 두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남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하고, 영성이 같아야 합니다. 룻이 내린 결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서 내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한평생 가난하게 산다고 하여도, 한평생을 과부로 산다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남으로 모시고 살겠다. 한평생을 아픔을 주위 먹으면서 근근히 산다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살겠다. 한평생을 고난 가운데서 산다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나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물으 것이다. 나는 하나님 없는 살아갈 수 없다. 룻이 이런 믿음으로 바로 룻을 믿음의 여인으로,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운 여인으로 만든 것입니다.